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2 pp. 287-293,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2.287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영숙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 during Higher Education on Employment

Youngsook Song
Baird University Colleg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 및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대졸자의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 및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고,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대졸자의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근로 경험 및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 및 정규직 취업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 인턴 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전공과 직무 일치 비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능력중심 채용이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 during higher education on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in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or internship.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xperience as well as internship on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or permanent employment were investigated. The data came from the 2013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e study covered the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mong the groups classified by work experience or internship. Intern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graduates' permanent employme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for internship during higher education need to be enhanced. The match between employment and the field of study in college needs to be increased. Interventions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cy-based employment should be improved.

Keywords : College Graduates, Working Experience, Internship, Employment

1. 서론

청년 실업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년 취업 향상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70%가 넘는 높은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졸자의 실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대학 졸업생의 직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Song(Soongsil Univ.)
Tel: +82-2-820-7218 email: yssong@ssu.ac.kr
Received December 9, 2016 Revised (1st January 3, 2017, 2nd January 18, 2017)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은 대학졸업생 자신은 물론 대학 및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대학 졸업생이 장기적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진로발달을 저해하여 직업에 대한 포부를 낮추고, 무능력자로 상처를 받는 소외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 교육의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와 더불어 기업 및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학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에 대한 거세진 요구를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대졸자의 실업률 증가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낭비시켜 국가 발전을 도태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킨다고 하겠다.

대학생들의 취업 관련 문제나 혹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는 성별, 전공 등과 같은 개인 특성[2, 3, 4, 5, 6]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 몇 몇 연구[7, 8, 9, 10, 11]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근로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상이하고, 대학 졸업 후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있어 대학 재학 중 학생들의 근로 경험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 및 정규직 취업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 및 정규직 취업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대학 중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는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학 재학 중 학생들의 근로 경험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대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근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고, 근로 경험을 위한 어떤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생 근로 경험이 취업에 주는 영향 관련 이론

대학생 근로 경험이 취업에 주는 영향에 관한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신호이론(signaling theory), 학력주의사회론(credentialism)을 살펴볼 수 있다[9, 11, 12].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고등교육에 의해 축적된 지식, 기술 및 정보가 대학생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대졸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9, 11]. 인적자본이론 관점에서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9].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미래 직업을 위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으나, 오히려 학업시간을 빼앗아 고등교육 학업성과를 저해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신호이론에서는 교육수준이 대졸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호이론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 대졸자의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대졸자들이 제공하는 신호에 의존하여 채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9, 11, 12]. 학력 및 역량에 대한 신호를 비롯하여 개인적 특성으로 사회적 배경, 외모, 추천서 등이 고용주들에게 노동생산성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 역시 신호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전공 관련 근로 경험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1]. 학력주의사회론은 고용주들이 채용을 결정하거나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대졸자의 학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11]. 대졸자가 받은 학교교육 및 졸업장이 직업과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즉 직무와 일치한 해당 전공의 졸업장을 소유한 것이 고용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적 배경, 성별 등 일종의 개인적 특성은 대졸자 취업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이나 근로 경험의 유형 역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2 선행연구 분석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연구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 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다[10, 13, 14, 15]. 이들 연구들에서는 대학 재학 중의 근로 경험이 직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직업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식의 증가 및 직무 역량의 향상을 가져와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 이행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3, 4]. 이들 연구들은 재학 중 근로 경험이 근로 활동으로 인해 학업성과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 이행 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근로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관한 연구 및 근로 경험 유형 혹은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8]는 근로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취업 분포의 차이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 경험 유형 혹은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에 따른 취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1, 16, 17]. [11]는 대학생 근로 경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대학 진학 전 전공 관련되지 않은 근로 경험, 대학 재학 중 전공 관련되지 않은 근로 경험, 대학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조교, 의무적인 전공 관련 인턴십으로 구분하고 근로 경험 유형별 구직기간, 직업 계층, 임금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11]는 전공 관련된 자발적인 근로 경험은 대졸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전공 관련되지 않은 근로 경험이나 의무적인 전공 관련 근로 경험은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7]은 재학 중 근로 경험의 유형을 생계형, 용돈벌이형, 직업탐색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따른 대졸자 취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형이나 용돈벌이형 근로 경험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탐색형 근로 경험은 취업 및 취업의 지속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근로 경험 유형에서 인턴십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한데, 인턴십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6, 18]도 있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19]. 한편, [9]는 재학 중 근로 경험의 전공 일치에 따른 월 평균임금과 직무불일치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전공과 일치한 근로 경험만 있는 경우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근로 경험만 있는 경우보다 임금이 높고, 직무불일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3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청년 실업 해소, 특히 최근 악화되고 있는 대졸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수집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실시되는 가장 큰 규모의 대졸자 코호트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개인 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을 포함한다[20]. 2013년도 자료는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 총 18,160명이 참여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pec.		N(%)
Gender	Male	9,528(52.5)
	Female	8,632(47.5)
Field of Study	Humanities	2,087(11.5)
	Society	3,524(19.4)
	Education	1,513(8.3)
	Engineering	4,986(27.5)
	Natural Science	2,290(12.6)
	Medical Science	1,151(6.3)
	Art and Sports	2,609(14.4)
Institution Type -Ownership	National	3,573(19.7)
	Public	171(0.9)
	Private	14,412(79.4)
	Other	4(0.0)

Institution Type -Year	2 Year	5,395(29.7)
	4 Year	12,325(67.9)
	University of Education	440(2.4)
Institution Area	Seoul	4,075(22.4)
	Kyunggi	4,711(25.9)
	Chungcung	2,904(16.0)
	Youngnam	4,299(23.7)
	Honam	2,171(12.0)
All		18,160(100.0)

3.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된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 및 문제에 맞게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중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 일치 정도가 대졸자의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취업과 정규직 취업은 1로, 미취업과 비정규직 취업은 모두 0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인 인턴 경험은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고, 재학 중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는 5점 리커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집단 간 차이 분석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 유무와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 경험이 있는 빈도는 10,664명(58.7%), 근로 경험이 없는 빈도는 7,496명(41.3%)로 나타났다. 근로 경험이 있고 취업을 한 경우는 전체의 41.7%인 7,576명으로 나타났고, 근로 경험이 없고, 미취업상태인 비율은 전체의 13.3%인 2,410명으로 나타났다. 근로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 역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경험이 있고 정규직 취업을 한 경우는 전체의 31.9%인 5,800명으로 나타났고, 근로 경험이 없고 비정규직인 비율은 전체의 20.6%인 3,736명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 in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Spec.		Work Experience		χ^2/p
		Yes	No	
Employment	Yes	7,576(41.7)	5,086(28.0)	21.263*** /.000
	No	3,088(17.0)	2,410(13.3)	
Permanent employment	Yes	5,800(31.9)	3,760(20.7)	31.571*** /.000
	No	4,864(26.8)	3,736(20.6)	
All		10,664(58.7)	7,496(41.3)	

***p<.001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턴 경험이 있는 빈도는 579명(3.2%)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이 없는 빈도는 17,581명(96.8%)로 나타났다.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취업 분포 차이는 유의확률값이 0.44(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 경험이 있고 취업을 한 경우는 전체의 2.3%인 426명으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이 없고 취업을 한 경우는 전체의 67.4%인 12,236명으로 나타났다. 인턴 경험 유무에 따른 정규직 취업 분포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값은 9.901, 유의확률 값이 .002(p<.01)로 통계적으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턴 경험이 있고 정규직 취업을 한 경우는 전체의 1.9%인 342명으로 나타났고, 인턴 경험이 없고 정규직인 비율은 전체의 50.8%인 9,218명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in Employment and Permanent Employment according to Internship

Spec.		Internship		χ^2/p
		Yes	No	
Employment	Yes	426(2.3)	12,236(67.4)	4.200* /.044
	No	153(0.8)	5,345(29.4)	
Permanent employment	Yes	342(1.9)	9,218(50.8)	9.901** /.002
	No	237(1.3)	8,386(46.1)	
All		579(3.2)	17,581(96.8)	

*p<.05, **p<.01

4.2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 일치 정도에 따른 취업과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턴 경험과 재학 중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유의확률 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 일치 정도는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 of Internship and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xperience on Employment

Variables	B	S.E.	Wald	p	Exp(B)
Internship	.025	.017	2.262	.133	1.026
The Relatedness of Work Experience and Employment	.115	.098	1.393	.238	1.122
Constants	.835	.043	380.742	.000	2.305

인턴 경험과 재학 중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턴 경험은 유의확률 값이 .023으로 유의수준 .05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 값을 기준으로 인턴경험이 1 변할 때, 정규직 취업으로 갈 확률이 1.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턴 경험은 정규직 취업에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 경험의 전공 일치 정도는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 of Internship and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xperience on Permanent Employment

Variables	B	S.E.	Wald	p	Exp(B)
Internship	.003	.015	.048	.826	1.003
The Relatedness of Work Experience and Employment	.199	.088	5.172	.023	1.220
Constants	.158	.039	16.307	.000	1.171

*p<.05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 및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과 정규직취업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대졸자의 취업 및 정규직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근로 경험 및 인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취업 및 정규직 취업 분포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학 중 근로 경험 유무별 첫 일자리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8]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고 하겠다.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과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 인턴 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턴 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공일치도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전공과 관련된 근로 경험이 대졸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9, 11, 17]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졸자의 취업 특히 정규직 취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턴 경험이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학 재학 중 인턴 경험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턴십은 단순히 현장 체험 학습을 넘어서 경력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인턴십을 통해 대졸

자들은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경험하며, 고용주는 면밀한 평가에 기반을 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정부, 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및 협력하여 인턴십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졸자 실업의 증가와 취업의 질 저하 현상 속에서 대학들은 재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재학생 인턴십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둘째,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대졸자의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대졸자의 전공-직무불일치 비율이 50%를 넘는 오늘날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21].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취업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공 관련 근로 경험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능력중심 채용보다는 학벌이나 졸업장이 중요시되는 학력 중심 채용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전공과 직무 일치 비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능력중심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이 졸업 후 성공적인 노동시장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산학연계 정책의 수립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졸자의 취업은 사회적 차원의 취업 관련 거시적 변인 예를 들면 GDP, 인구추계 등과도 연관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턴 경험 및 근로 경험의 전공일치도가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대졸자 취업 관련 향후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미시적 변인들과 사회적 차원의 거시적 변인들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양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대졸자의 취업 관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양한 근로 경험의 유형과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양적 접근 방법과 함께 질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대졸자의 근로 경험과 취업에 관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살펴보는 심층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Mail Economy Newspaper, "*Need to go to college? One out of four unemployed persons is college graduate*", October. 17, 2016[Online]. Available: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22501

[2] S. K. Yoon and Y. K. Han.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career outcome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3(4), pp. 131-160, 2014.

[3] C. K. Chae and T. G. Kim.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The Journal of Vacational Education Research, 28(2), pp. 89-107, 2009.

[4] Y. J. Hwang and B. B Baek.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1(2), pp. 1-23, 2008.

[5] T. P. Gerber and S. Y. Cheung. "*Horizontal stratifica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Forms,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pp. 299-318, 2008. DOI: https://doi.org/10.1146/annurev.soc.34.040507.134604

[6] C. K. Park. "*Student factors on employment of engineering graduates: A Korean university case*",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4(3), pp. 288-306, 2015. DOI: https://doi.org/10.7545/ajip.2015.4.288

[7] J. S. Kim. "The effect of work experience on labour market outcomes", *Paper presented at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of Conference*, Seoul, Korea. Korea Labor Institute. 2003.

[8] B. H. Lee. "*The effects of in-school work experience on subsequent labor market outcomes*", The Journal of Labor Management, 26(1), pp. 1-22, 2003.

[9] K. D. Jung and M. H. Cho.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ing experience while in college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Focused on the wage and job mismatch*", Korea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7(2), pp. 237-259, 2016.

[10] C. K. Chae. "*Work experience during the university years and probability of students preparation to find future employ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2(1), pp. 169-184, 2003.

[11] F. Weiss, M. Klein, and T. Grauenhorst.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 during higher education on labour market entry: learning by doing or an entry ticket*?",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8(5), pp. 788-807, 2014. DOI: https://doi.org/10.1177/0950017013506772

[12] D. B. Bills. "*Credentials, signals, and Screens: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ing and job assignment*",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73(4), pp. 441-469, 2003. DOI: https://doi.org/10.3102/00346543073004441

[13] S. J. Park and J. H. Ban. "*Effects of pre-employment efforts of the college graduate youth in Korea*", Korean Demography, 29(3), pp. 29-50, 2006.

[14] H. Russell and P. J. O'Connell. "*Getting a job in*

Europe: The transition from unemployment to work among young people in nine european countri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1), pp. 1-24, 2001.
DOI: https://doi.org/10.1177/09500170122118751

[15] D. Stern, M. McMillion, C. Hopkins, & J. Stone. "*Work Experience for students in high school and college*", Youth & Society, 21(3), pp. 355-389, 1990.
DOI: https://doi.org/10.1177/0044118X90021003004

[16] J. K. Ahn and H. J. Bae. "*The effects of working while in college on the labor market transitions and outcom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1(4), pp. 149-180, 2011.

[17] C. Y. Lee.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working experiences by the reasons for working on the earlier labor market outcomes*", Economic Study, 31(1), pp. 85-106, 2013.

[18] H. W. Kim, " The effect of training during internship and the relatedness to field of study on internship outcomes", *Paper presented at Labor Panel of Conference*, Seoul, Korea.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4.

[19] C. K. Chae, J. H. Choi, Y. K. Ahn, H. Y. Oh, J. P. Ok, *College to Work Transi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Youth(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5.

[20] Korea Labor Institute homepage. [cited 2016 December 3] Available :http://survey.keis.or.kr/ goms/goms01.jsp.

[21] G. Montt.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field of study mismatch: An analysis using PIAAC”,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67, OECD Publishing, Paris. 2015.

송 영 숙(Youngsook Song) **[정회원]**

- 199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8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 D)
- 2015년 4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학습, 프로그램 평가, 조직개발